

이스라엘을 400년 애굽에서의 운명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의 축복을 주셨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고, 모든 민족 살리는 일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한다. 어려움과 고통과 재앙이 계속된다. 그것이 사사시대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유다 지파를 빼 나머지 지파가 실패했다. 아예 싸울 생각을 안했다. 대충 타협했고, 그들의 우상과 문화에 빠져 살게 되고, 결국 그들에게 짓밟히는 시대까지 맞는다(마5:13)

둘째는 언약 전달의 실패였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고 난 뒤에 그 후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다(삿8:10) 그래서 우리는 생명 길고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다. 아니면 후대들은 비참해지는 것이다.

셋째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줄 지도자가 없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는 그 축복이 있었다. 이 축복이 없으니 모두가 각자의 소견대로 살았다고 했다(삿21:25).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암8:11)

이 사사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두 사람이 있다. 지난 주의 나오미와 룯이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생명 건 언약적 결단을 했는데, 고통과 저주 속에 있던 그 가정과 가문, 그 시대, 그리고 미래까지 흐름을 바꾸었다.

본문 사무엘서는 아예 이 사사시대를 끝내 버린 두 사람이다. 주의 종 사무엘과 그를 통해 세워지는 램넛트 다윗이다. 세상에 짓밟히고 조롱을 당했는데 그것이 끝나고 이스라엘 최고의 시대가 열린다.

이번 세계 램넛트 대회와 리더 수련회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는 전환점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램넛트들이 일어나 그들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시대다. 우리는 그 증인이 되어야 하고, 그 발판이 될 사람들이다. 내가 그 현장에 못 가고 기도만 해도 그 기도를 기억하실 것이다.

본문의 사무엘과 다윗, 나이, 시대, 직분, 다 달랐다. 그런데 그 시대를 바꾸는 팀이 되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

1. 언약으로 통했다. 인생의 근본, 절대, 유일한 해답과 배경과 능력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통하려면 각자 안에 함께 하신 그 분과 그 분의 언약으로 통해야 한다.

1) 그리스도다.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아직 오시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것이 언약계의 비밀이다.

① 출25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놓고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언약계를 만들라고 하신다.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거기의 핵심이 언약계다. 그 언약계가 그리스도를 예언한다. 그 안에 십계명(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짝난 지팡이(부활의 능력), 만나(완전히 책임지시는 그리스도)가 있다.

② 그런데 그 위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언약계를 덮는 속죄소라는 뚜껑이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이곳에 들어가 양을 잡아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모든 주의 백성의 죄와 저주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것이다(히4:16, 10:19). 이것을 놓치지 마라는 것이다.

③ 사무엘과 다윗이 어느 정도로 이 언약계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했는가?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심부름하면서 늘 이 언약계 옆에서 머물렀던 사람이다(삼상3:3)

다윗은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이 언약계를 자기 궁궐로 옮겨 온 것이다(삼하6:1-23)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것이었다.

2) 하나님의 나라다. 최고의 배경을 누리고, 최고의 정체성 가지고 산 사람들이다.

①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로 한 일 중에 하나가 미스바 집회다(삼상7:3-14).

전 백성이 모여 우상을 버리고 금식할 때 감히 이때를 틈타서 블레셋이 쳐들어 오지만 사무엘은 그냥 예배한다.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이들을 두려움에 떨며 흩어지게 만들었다. 사무엘이 진짜 하늘 배경을 믿은 것이다.

② 다윗은 그 이후 다시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울 때 어느 정도 하나님 배경을 누렸는지 안다(삼상17:45)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도 경쟁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정체성 가지고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해보라 이 축복을 가졌기에 이제는 땅에 것이 아닌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찾는 훈련을 하라(골3:1-4)

3) 성령의 능력이다. 이 힘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시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다.

① 구원받은 순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전3:16). 이제는 내가 그 분의 힘을 얻고, 그 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가 중요하다(영적 상태). 내가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성령 충만을 받는 시간이다.

② 사무엘이 어느 정도 기도의 사람이었는가? 평생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했다(삼상12:23)

다윗은 시편 전부가 기도다. 기도를 일기로, 작품으로 남겨 보라.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는 이걸로 통한다.

2. 하나님의 미션(천명, 소명, 사명)으로 통했다. 우리가 언약을 정말로 깨닫고 누리기 시작할 때 오는 것이다.

1) 두 사람 모두 정말 어려운 시대, 어려운 개인의 문제 속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교회를 보았다. 제사장은 둔하고, 그 아들들은 성전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중직자는 잠을 자고 있었다.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에게 쫓겨 다닌 사람이다. 그들이 그 시대 지도자들이었다.

2) 그 속에서 정말로 기도하다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시대를 바꾸는 영적 리더들로 세워진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는구나”(천명), “그래서 나를 먼저 불러 그 분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소명), “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라고 하시는구나”(사명)

내 있는 자리에서, 문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미션을 찾아내라. 그 두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3. 이들 뒤의 영적 지원자들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누군가를 붙혀 돕게 하신다.

1) 사무엘을 위한 어머니 한나의 기도 지원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둔했던 제사장 엘리도 사용하셨다.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을 낳았고(삼상1:17-18),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친 것도 엘리다.

다윗은 어떤가?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셨다가(1절) 본문에 정확히 만나게 하신다. 들판에서 일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내게 해서 기름을 붓게 하신다. 그 이후 사무엘은 어느 정도 다윗을 마음에 담고 기도했을까?

2) 모든 성도와 램넛트는 주의 종과 중직자들이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라.

주의 종들도 실제로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숨은 램넛트를 찾아 축복하는 일을 해야 한다. 중직자들이 도와야한다

결론-두 사람이면 된다(마18:19-20).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나와 함께 할 또 한 사람을 놓고 응답받기를 바란다